

영암·나주 AI 잇단 발병

〈조류인플루엔자〉

무조건 살처분령

발생 농가 3km 이내 40만 마리 매몰키로

나주지역에서도 의사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의심되는 오리·닭이 잇따라 폐사하고 있어 전남지역 축산농가와 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지역은 AI가 발생한 영암군 신북면에서 반경 10km 내외에 있으며 104개 농가가 닭·오리 31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전남도는 10일 「의사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심각한 감염 확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대비, 정밀검사 결과(12일 예정)가 나오기 이전인 11일 오후 감염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반경 3km 이내 14개 농가 40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전부터 나주시 공산·세자·반남·신포면 등 4곳에서 2천 마리의 닭·오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축산기술연구소가 현지에서 가검을 체취해 나서는 등 현지 역학 조사에 나섰다.

이번에 폐사한 닭의 경우 호흡 곤란과 식욕 부진, 안면 부종 등 전형적인 AI 증세를 보이다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폐사된 닭·오리가 발생된 4개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위험(3km 이내)·경계(3~10km) 지역을 대상으로 하루 2차례 이상 집중 소독에 나설 방침이다.

〈체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이소연씨 본격 우주 임무 수행

어젯밤 ISS 도킹

광주 출신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 소연(29·한국항공우주연구원)씨를 태우고 우주로 향한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 TMA12호가 10일 오후 국제 우주정거장(ISS)과의 도킹에 성공함에 따라 이씨의 본격적인 우주 임무

가 시작됐다.

소유즈 우주선은 이날 오후 10시(한국시각, 국제표준시각 GMT 오후 1시) ISS와 도킹을 시작해 3시간 만인 11일 새벽 0시50분(GMT 오후 3시50분) 이씨와 세르게이 볼코프 선장(34), 올레그 코노넨코(43) 비행 엔지니어가 해치를 열고 ISS로 진입했다.

세 우주인이 ISS에 탑승하면서 현재 ISS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주인 3명이 전통에 따라 새로운 우주인을 맞이하는 '우주인 환영식'을 가졌다. 환영식에 이어 이씨 등 6명의 우주인들은 모스크바 임무통제센터(MCC)에서 대기하던 한국 대표 백홍열 항공우주연구원장 등과 11일 새벽 1시20분(GMT 오후 4시20분)께 10여분간 인터뷰를 했다.

이씨는 ISS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과학실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담겨있는 하드디스크를 설치, 식물생장실험과 미세 중력환경에서 세포배양 실험, 초파리의 중력반응과 노화 유전자 탐색 실험 등 3가지 실험을 시작했다. 이씨는 이어 ISS에서의 첫 날을 보낸 뒤 11일 오후 7시20분(GMT 오후 10시20분) 기상, 우주에서의 둘째날 일정에 들어간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4월 7일 신문의 날 휴무 늦춰 내일 신문 쉽니다



광주지하철 1호선 오늘 완전 개통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 개통식을 하루 앞둔 10일 광주도시철도 공사 직원들이 용산차량기지에서 경축 꽃장식을 한 전동차를 시운전하는 등 행사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20면〉

/위직당기자 jwi@kwangju.co.kr

보궐선거 넌더리...깨끗한 표들의 반란

■ '돈 선거' 고리 끊은 해남 군민들

“민주당 텃밭도 깨졌고, 소지역 주의 깨졌고, 돈 선거도 깨졌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당초의 예상을 뒤집고 무소속 김영록 후보가 당선된 일이 지역사회에 신선했던 과정을 불러 일으켰다.

김 당선자가 '젊은 인물론' 하나로 3가지 벽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킨 것도 화제지만, 그동안 돈선거 시비로 2차례의 보궐선거를 치렀던 해남군의 유권자들이 지역의 오명을 짓으려는 듯 해남 태생도 아닌 참신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 '깨끗한 선거'를 갈구하는 해남지역민들의 반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당시 박혁현 해남군수로부터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주민 55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은데다 2004년 10월의 해남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주민들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는 곤욕을 치렀다.

하고 있는 해남 출신에 민주당 공천의 이점, 7번의 선거 출마로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민화식 후보를 상대로 5천 표 이상의 차이로 승리했다.

김 당선자는 당선 확정 직후 “돈

(선거자금)도 없고, 정당 조직도 없

는 저를, 인물 하나만 보고 선택해

주신 지역민께 고개숙여 감사 드린



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무소속 출마 결심을 했다. 선거 사무실도 고향인 완도를 떠나 해남읍에 차렸다. 선거전략은 민 후보의 '선거 7번 출마 경력과 '68세의 나이'에 맞서 '젊고 능력있는 인물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조작원 하나 없이 생소한 선거구에 뛰어든 김 당선자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김 당선자는 “너무 힘들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눈물 흘릴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를수록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지지 분위기가 감지됐다. 거리 곳곳에서 만난 유권자들이 지지 약속과 함께 깨끗한 정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선거 초반 10%대에 머물던 지지도 3월말에 30%대로 뛰어오르는 등 믿음의 움직임도 수치로 나타났다.

소지역 주의에서 탈피한 해남 유권자들은 젊고 깨끗한 능력있는 인물을 원했던 것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김영록 당선자 공천탈락 초반 고전

텃밭정당·소지역주의·돈선거 극복



4월 7일 신문의 날 휴무 늦춰 내일 신문 쉽니다

Elégance **엘égance** 2004년 국내 최대 규모
전통 씨푸드 레스토랑 | OPEN 행사 실시
4월 20일까지 20% 할인 행사

100여 종 씨푸드로 만족스러운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 씨푸드 레스토랑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님의 즐거움을 전합니다.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원산 바다 음식, 해산, 한반도의 바다 한마디에 모았습니다.

Elégance **엘égance** 대학로 062-971-2020